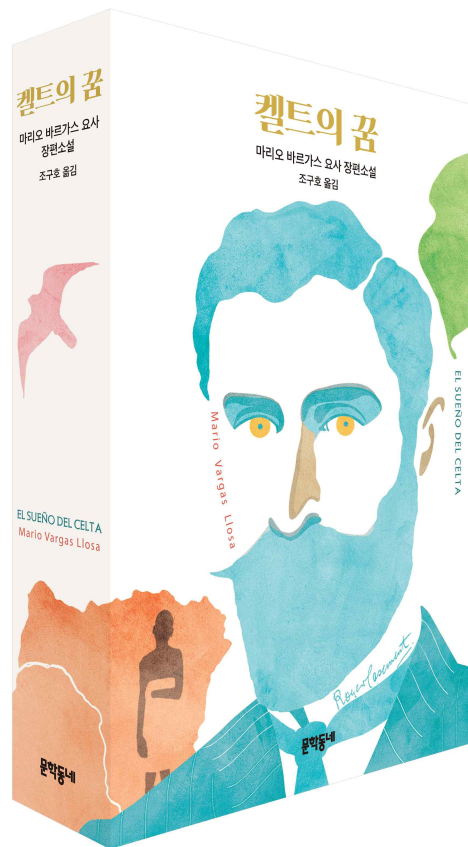


켈트의 꿈

EL SUEÑO DEL CELTA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장편소설 | 조구호 옮김

로저 케이스먼트, 그는 누구인가?

라틴아메리카문학의 거장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펜끝에서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재조명되는 로저 케이스먼트의 생애와 신념과 철학,
사후 백여 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그의 복권

#유럽제국주의 #식민주의 #콩고 #아마존 #아일랜드
#블루북 #블랙다이어리 #영웅인가_반역자인가

“어떤 일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자문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왜곡되어 있는 것을 곧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_본문에서

1952년 16세에 작가로 데뷔해 86세에 이른 2022년 현재까지 70여 권의 책을 펴내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문학의 거장이자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장편소설 『켈트의 꿈』(원제: EL SUEÑO DEL CELTA)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켈트의 꿈』은 벨기에령 식민지 콩고에서 자행된 잔혹한 학살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비범한 실존 인물 ‘로저 케이스먼트’의 일생을 밀도 높게 복원해냄으로써 유럽 식민주의의 이면과 전횡을 포괄적으로 조명한 장편 대서사로, 스페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아일랜드의 ‘독립 영웅’인가 vs. 영국의 ‘반역자’인가?

문제적 인물 로저 케이스먼트의 ‘삶과 생각’에 대한 섬세하고 입체적인 문학적 고증 ‘무용한 잔인성의 희생자’들과 스러져간 ‘켈트의 꿈’에 대한 웅장한 헌사

‘탐험’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제국주의의 탐욕과 인간 본성의 타락을 문학적으로 고발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 『암흑의 핵심』. 평생 영어로만 작품을 남긴 이 폴란드 태생의 작가는 한때 ‘상부 콩고 교역을 위한 벨기에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스탠리 폭포의 급류 사이를 오가며 화물과 상인을 실어나르는 소형 증기선 중 하나의 선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1890년 6월 콩고 서부 마타디에서 당시 영국 영사로 벨기에령 콩고 식민지에 근무중이던 아일랜드 태생의 로저 케이스먼트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의 소설 『암흑의 핵심』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이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제국주의의 잔혹한 실상을 알렸다면, 청년 콘래드에게 콩고의 실상에 대한 충격적 각성을 불러일으켜 『암흑의 핵심』으로의 여정을 열어주었던 영국 외교관 케이스먼트가 훗날 남긴 「콩고에 관한 보고서」와 「푸투마요에 관한 보고서」는 국제 사회로 하여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되는 ‘인간 짐승’들의 야만 그 자체의 실태를 낱알이 목도하게 한 역사적 문건이었다.

“당신 이름이 그 책에 공동 저자로 실렸어야 했어요, 케이스먼트.” 그가 로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확언했다. “당신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책을 결코 쓰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눈에서 눈곱을 떼어주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해, 콩고 자유국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짐승에 대해.” (112쪽)

영국의 저명한 외교관이자 아일랜드의 인권 및 독립 운동가인 로저 케이스먼트는 1916년 8월 3일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한 인물이다. 한때 대영제국의 훈장과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 반역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바르가

스 요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로저 케이스먼트의 삶을 집요하게 파헤쳐 특유의 장중한 문체와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입체적 시점으로 재구성한다.

대영제국의 장교로 인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프로테스탄트 아버지는 아들 로저에게 이국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모험에 대한 열정을 심어준다. 반면 가톨릭을 신앙하던 어머니는 로저 케이스먼트에게 섬세한 감성을 심어줌으로써 그가 차츰차츰 가톨릭 신앙에 접근하게 만든다. 스무 살 때 콩고로 떠난 로저 케이스먼트는 동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적' 무역을 하던 영국 선박회사 엘더 뎀프스터 라인에서 근무한 뒤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주도하는 국제콩고협회AIC의 탐험대에 참여해 막 태동된 콩고 자유국 원주민을 개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콩고에서 혹독한 삶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인도주의적 이상이 순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영국의 탐험가 헨리 모턴 스탠리의 신화와 벨기에 왕의 인도주의적 신화가 깨지는 것을 실감한다. 그후 외교관이 되어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자유국, 브라질 주재 영국 영사로 근무하면서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탐욕과 만행을 직접 목격한다. 특히 콩고와 페루의 푸투마요 지역에서 고무 채취업자들의 원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노동 착취와 잔혹행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다. 벨기에 정부는 그의 「콩고에 관한 보고서」(1904)를 기초로 콩고의 통치구조를 크게 재편하고,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05년 영국 정부가 뛰어난 공적을 세운 영국 외교관에게 수여하는 '성 마이클-성 조지 훈장'을 받는다.

1912년 로저 케이스먼트는 페루의 푸투마요에 관한 보고서 '블루 북'을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인 파동을 그리며 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다른 지역, 특히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로 퍼져나간다. <타임스>는 보고서에 관해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고, 로저 케이스먼트를 높이 칭송한 어느 신문의 사설은 그가 위대한 인도주의자의 비범한 재능을 한번 더 보여주었다면서, 노예제도를 운용하고 원주민을 고문하고 말살하는 산업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영국 회사와 주주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11년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는다. 그후 로저 케이스먼트는 식민지 상태였던 조국 아일랜드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건강까지 나빠지자 19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아일랜드로 돌아가 1913년부터 조국의 독립투쟁에 헌신한다. 그는 얼스터의 프로테스탄트 가문 출신임에도 로마가톨릭교도가 대부분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항상 입장을 같이해 아일랜드 민족의용군 창설을 돕고, 아일랜드 의용군이 부활절 봉기에 사용할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하는데, 이 무기 조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영국군에 체포되어 런던으로 이송되어 반역죄와 간첩활동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아일랜드의 독립을 반가워하지 않던 영국이 서둘러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퍼진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자 코넬 도일, 버나드 쇼 등 영국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영국 정부를 위해 봉사한 그의 공적을 내세워 구명활동을 벌이지만 뜻밖에도 그가 남긴 '일기'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로저 케이스먼트의 동성애 행각이 기록된 일기가 공개되어 영국 정부가 그의 '성적 타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여론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이 '일기'의 존재로 인해, 그를 살려내려던 구명 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1916년 8월 3일 런던에서 교수형에 처해진다. 그의 시신은 아일랜드가 독립한 지 28년이 지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 국립묘지에 묻힌다. 현재 그는 많은 사람에게 아일랜드의 독립 영웅으로 기억된다.

이 소설의 제목 ‘켈트의 꿈’은 로저 케이스먼트가 브라질의 산투스로 떠나기 전인 1906년 9월 아일랜드의 신화적인 과거에 관해 쓴 ‘켈트의 꿈’이라는 장편 서사시의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로저 케이스먼트가 염원한 ‘켈트의 꿈’은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해방해 독립국이 되는 것이었다. 『켈트의 꿈』은 크게 ‘콩고’ ‘아마존’ ‘아일랜드’를 다룬 15개 장과 ‘에필로그’로 이뤄져 있는데, 홀수 장과 짝수 장이 독특한 면모를 드러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홀수 장은 로저 케이스먼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삼 개월 전에 세밀하게 회상하는 과거를 다루고, 짝수 장은 콩고에서 행해진 식민주의의 공포를 고발하고(2장, 4장, 6장), 아마존에서 자행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살을 다루며(8장, 10장, 12장), 아일랜드 독립을 위한 로저 케이스먼트의 활약상과 좌절을 그린다(10장, 12장, 14장). 에필로그는 로저 케이스먼트에 대한 후일담이다.

▶ 추천사

집단성이 사회적 악성 종양에 의해 병들어 위기에 처할 때, 고통스러운 현실의 마지막 비밀이 역사와 인간의 이성 속에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밝혀내는 소설이 등장해야 하는데, 『켈트의 꿈』은 이런 소설의 모범적인 사례다. _조구호(울진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19세기 소설과 20세기 초 소설 전통의 연장에 서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써내려간 감명 깊은 역사 소설. _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세계에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단연 초신성이다. _월스트리트저널

우리 시대의 거장 중 하나인 페루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대담하고 역동적이며 끝을 모르는 상상력은 진정 감탄할 만하다. 여느 위대한 작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껏 우리가 보면서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명확히 보게 해준다. _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 본문에서

지금이라면 로저는 그런 문장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기하기 전에, 어느 집에서든 새장을 발견하게 되면 늘 느껴지던 불쾌감에 대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새장에 갇힌 카나리아, 검은머리방울새, 앵무새 들은 그에게 늘 무용한 잔인성의 희생자처럼 보였다. (38~9쪽)

“내 조국은 아일랜드요.” (39쪽)

“왕에게는 사면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왕이 아니라 당신들의 왕이잖소.” (39~40쪽)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 아일랜드를 위해서였다는 걸 너는 알 거야. 그렇지?” (43쪽)

“물론, 나는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너도 내 친구들 그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47쪽)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은가, 그것은 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속임수를 정당화하고 있음.’ (59쪽)

어떤 일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자문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왜곡되어 있는 것을 곧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97쪽)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소.” 셰리프가 로저의 등뒤에서 툭툭거렸다. “외교관 직책. 훈장. 왕은 당신에게 작위를 주었고. 그런데도 당신은 독일인에게 자신을 팔았소. 참으로 비열하게도. 배은망덕하게도.” (191쪽)

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즉, 그 저널리스트가 실제 사건들로 기사를 시작하지만 악폐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그것들에 비현실성, 심지어는 다소 가학적인 상상력이 팽배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로저는 자신과 모델이 콩고 자유국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즉 의혹을 공표했을 때 수많은 영국인, 유럽인, 그리고 미국인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그런 불신이었음을 기억해냈다. 무법천지에서 탐욕과 저급한 본능에 휘말려 자행할 수 있는 형언 불가능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잔혹행위들이 콩고에서 일어났다면 아마존에서라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238~9쪽)

다시 콩고다, 모든 곳이 콩고다. (278쪽)

사소한 바보짓거리들이 커다란 사안들과 뒤섞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큰 사안들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285쪽)

이제 압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독립은 한 번 더 뒷걸음쳤다. 슬프고 슬픈 역사여! (290쪽)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성향의 감상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을 휘젓는 격변을 완벽한 평온의 가면 뒤에 늘 감출 줄 알았다. 하지만 1914년 10월 마지막날 아이빈트 아들러 크리스텐센을 대동해 베를린에 도착한 이후로 그의 성격이 달라졌다. (296쪽)

이 투쟁 속에서 만약 독일이 승리한다면 아일랜드는 독립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계속해서 믿었다. 그런데 승리가 영국 편이라면 아일랜드의 독립이 더 멀어질 것이다. 그는 독일이 아니라 아일랜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305쪽)

아일랜드에서 케이스먼트라는 이름은 비록 늘 마지못해 점잔을 빼면서였을지라도, 주로 성적인 영역에서 관습의 변화와 더불어 차츰차츰 원래 모습 그대로, 즉 위대한 반식민지주의적 투사 가운데 한 명, 당대의 인권과 원주민 문화의 옹호자 가운데 한 명, 아일랜드 해방을 위해 희생한 전투원 가운데 한 명으로 받아들여졌다. (703~4쪽)

아마도 논쟁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나쁜 일만은 아니다. 한 인간을, 즉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그물이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늘 빠져나가는 총체성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길란 불가능하다는 증거로서, 로저 케이스먼트에 관한 불확실성의 분위기가 늘 유지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704~5쪽)

▶ 차례

콩고	011
아마존	213
아일랜드	529
에필로그	699
감사의 말	708
해설	711

▶ 지은이와 옮긴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Mario Vargas Llosa

1936년 페루 아레키파에서 태어났다. 리마의 산마르코스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스페인 마드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2년 16세에 군사학교를 중퇴한 뒤, 1년 전 썼던 희곡을 무대에 올리고 시를 출판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1963년 레온시오 프라도 군사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 『도시와 개들』을 출간하며 주목받기 시작해, 1966년 발표한 장편 『녹색 집』으로 페루 국가소설상, 스페인 비평상, 로물로 가예고스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5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1994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세르반테스 상을 받았다. 이 밖에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T. S. 엘리엇상, 예루살렘상, 부다페스트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으며 201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과 에세이, 시집, 연극 대본 등 지금까지 7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1959년 파리로 거처를 옮긴 뒤 런던과 바르셀로나 등을 거쳐 1974년 자발적 망명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페루로 돌아와 영주하고 있으며, 1990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에게 패해 낙선했으나, 이후로도 라틴아메리카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및 세계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베를린에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연설에 참여했다.

옮긴이 조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의 인스티투토 카로 이 쿠에르보에서 문학석사, 폰티피시아 우니베르시다드 하베리아나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남미 문학과 문화를 연구·강의하고, 에스파냐어권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 『이 세상의 왕국』 『폐허의 형상』 『백년의 고독』 『책 파괴의 세계사』 『갈레아노, 거울 너머의 역사』 『소금 기둥』 『과꾼도』 『조선소』 등을 옮겼으며,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읽기』 등 중남미에 관한 책 몇 권을 썼다.

*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 쪽수 728쪽

* 판형 128×188mm(무선)

* 값 25,000원

* ISBN 978-89-546-8606-8 03870

* 담당편집 해외문학1팀 이현정 (031-955-2652, bonbon@munhak.com)